

# 여수시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 외부 경관 집수리 지원 450여 세대 신청...소방도로 개설 교통체증 해소

### 내년부터 어울림센터·청년창업시설·게스트하우스·주차장 등 추진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여수 문수지구

여수시가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외부 경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문수지구는 1986년 IBRD차관으로 조성된 노후주택단지다. 시는 2018년 공모 선정 이후 국토교통부의 실현타당성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 30일 활성화계획을 고시했다. 지난 달까지 집수리 수요조사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집수리 사업은 1,000만원 한도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약 450여 세대가 신청했다. 주택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옥상방수, 외벽, 창호, 대문, 담장 보수를 추진한다.

시는 이에 앞서 뉴딜사업과 연계해 224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소방도로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관도 매설을 추진 중에 있다.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2차로의 차도와 노면주차장 312면을 확보해 주택단지 내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시는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올해 안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어울림센터, 청년창업시설,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텃밭 등 하드웨어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순천시,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 입주식

### 건강한 노후 위한 주거·의료 논스톱 서비스 공유주택

순천시는 최근 노인 통합돌봄을 위해 마련된 주거 공유시설인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 입주식을 가졌다.

입주식은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맺은 LH,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와 입주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축하 덕담을 나누는 집들이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때까지 주거와 의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집 역할

을 한다. 독립된 생활이 보장된 원룸형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고, 조리사가 제공한 식사와 방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웃과 함께 정원을 가꾸는 등 심신안정 활동도 진행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보성군, 코로나19 확산 방지...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총력

### 전자출입명부 의무 고위험시설 전 영업장 설치 완료

보성군은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197개소) 점검에 나섰다.

점검 시설은 종교시설 146개소, 노래연습장 12개소, PC방 4

개소, 유흥주점 24개소, 단란주점 6개소이며,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업장의 경우는 설치 유무 확인과 함께 전자 출입명부 활용법을 홍보했다.

보성군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대상인 고위험시설(노래연습

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모든 영업장이 설치를 완료했고, 7월 10일부터 의무적용시설에 추가된 교회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 및 관리 소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집합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이용객 또한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작성을 통해 군민 스스로가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고흥 명품 복숭아 15톤 홍콩 수출

### '해외수출시장개척단 활동' 실적으로 나타나

고흥군은 최근 고흥 복숭아 15톤을 홍콩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고흥 복숭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조생종으로 6월에 출하되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나 코로나19 여파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 가운데, 출하시기를 맞이한 복숭아가 이번 수출로 복숭아 농가들의 걱정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군은 지난해 8월 송기근 군수를 단장으로 한 해외수출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홍콩에서 관측활동 시 맺은 400만 달러 수출협약의 결과로 나타났다.

복숭아를 수출하는 김도기 대표(고흥명품복숭아영농조합법인)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

라 당도가 높은 품질 좋은 고흥복숭아가 홍콩에 수출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판로확보 걱정을 덜 수 있어 다행이다"며 "군에서 밭 밟고 나서 수출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리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마케팅을 확대하고 다른 작목 또한 판로확보에 주력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이뤘다"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품질 좋은 고흥 복숭



이를 소득유망 품종으로 지정하여, 생산 기자재와 봉지, 대형마트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양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R&BD) 지원사업' 기업 선정

### 28개사 기획·컨설팅 등 지원

광양시는 2020 광양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R&BD) 지원사업 참여기업 2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매년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지원, 공정개선, R&D 기획지원, 시

원, 경영 컨설팅지원, 전시회 및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국내인정 및 정부 공모사업 선정, 공정개선 비용절감, 시제품 제작 등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품 판매 증가와 매출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서비스업, 농식품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지원 폭을 넓혔다.

임재기 지역경제과장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개척과 고용창출 등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선웅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